

# 20대 후반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

김 소 라\*

##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고용사정이 둔화되고 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취업자도 감소하여 고용률은 2018년 이후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 5월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하여 67.1%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같은 기간 4.2%로 보합세를 보였다.

2018년에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후반(25~29세) 고용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2018년 20대 후반 취업자는 전년대비 116천 명 증가하여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에코붐세대가 본격적으로 20대 후반으로 진입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등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한 영향과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는 20대 후반 청년층 고용률 개선폭이 2018년만 못한 상황이며, 특히 20대 후반 대졸자는 고용률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는 등의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이는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을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sorak@kli.re.kr).

## II.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개관

20대 청년층의 주표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대비 30천 명 증가하고, 2019년 1~5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44천 명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표 1 참조).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1~5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34천 명 증가하였고, 증가한 경제활동인구 모두 취업자로 유입되었다(실업자 1천 명 감소). 연령을 5세로 나누어보면, 2010~2016년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20대 초반에서 2017년부터 취업자가 감소하는 중이며(2019년 39천 명 감소),

〈표 1〉 20대(20~29세)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 도				1~5월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9
생산가능인구 (증감)	6,256 (57)	6,296 (40)	6,360 (63)	6,390 (30)	6,279 (41)	6,345 (66)	6,380 (35)	6,424 (44)
경제활동인구 (증감)	3,979 (70)	4,063 (83)	4,063 (0)	4,086 (24)	4,057 (80)	4,061 (4)	4,081 (20)	4,115 (34)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63.6 (62.9)	64.5 (63.7)	63.9 (62.9)	64.0 (62.6)	64.6 (63.9)	64.0 (62.6)	64.0 (62.9)	64.1 (63.2)
(여성)	(64.3)	(65.3)	(64.9)	(65.2)	(65.3)	(65.4)	(65.0)	(64.9)
취업자 (증감)	3,619 (63)	3,664 (44)	3,660 (-3)	3,699 (39)	3,618 (41)	3,631 (12)	3,663 (33)	3,698 (35)
고용률 (남성)	57.9 (56.3)	58.2 (56.7)	57.6 (55.6)	57.9 (56.1)	57.6 (56.2)	57.2 (55.0)	57.4 (56.0)	57.6 (56.1)
(여성)	(59.4)	(59.6)	(59.4)	(59.6)	(59.0)	(59.4)	(58.8)	(59.0)
실업자 (증감)	360 (8)	399 (39)	402 (3)	387 (-16)	439 (39)	431 (-8)	418 (-13)	417 (-1)
실업률 (남성)	9.0 (10.5)	9.8 (11.0)	9.9 (11.5)	9.5 (10.4)	10.8 (12.0)	10.6 (12.2)	10.2 (11.0)	10.1 (11.3)
(여성)	(7.6)	(8.8)	(8.4)	(8.6)	(9.7)	(9.1)	(9.5)	(9.0)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2,277 (-13)	2,234 (-43)	2,297 (63)	2,303 (6)	2,222 (-39)	2,284 (62)	2,299 (15)	2,3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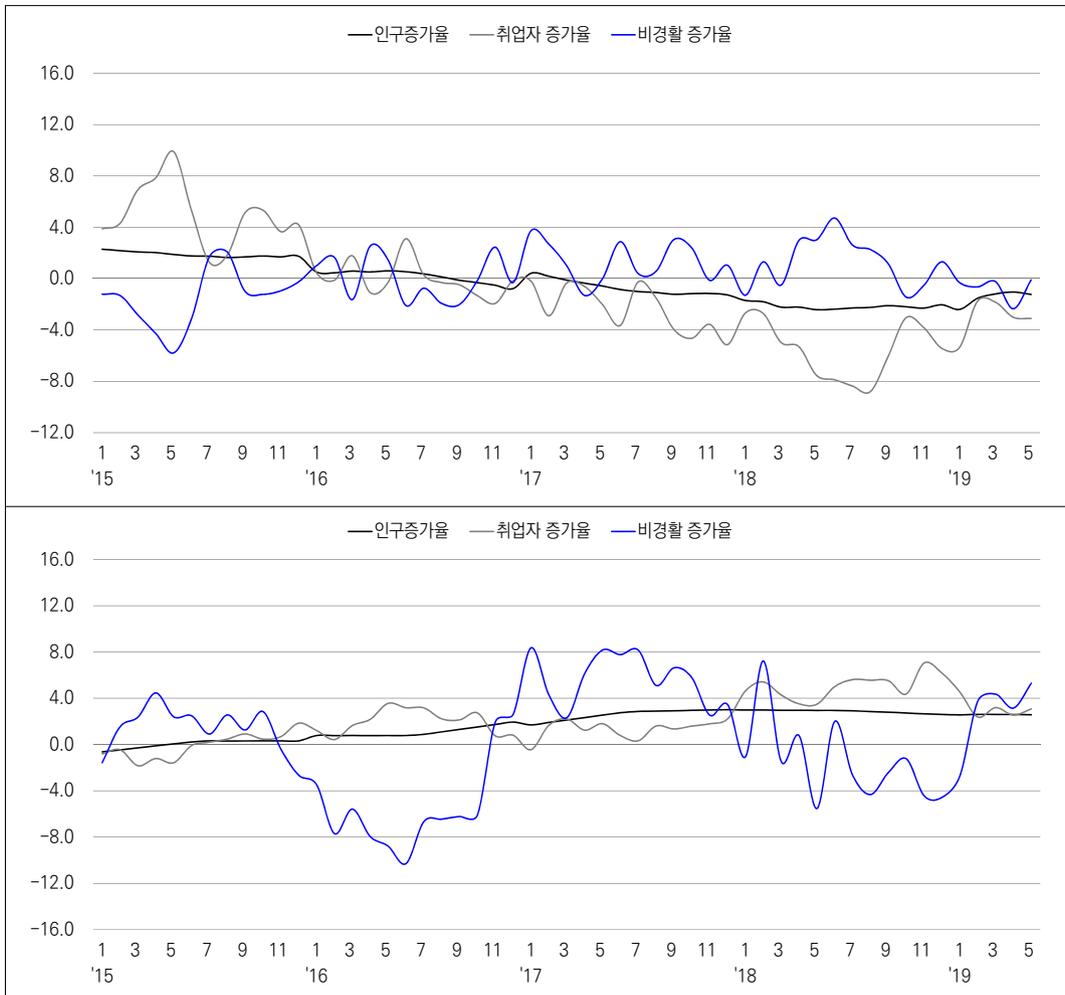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후반은 2015년까지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이후 증가하여 그 추세가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2019년 75천 명 증가). 2019년 1~5월 청년층 고용률은 57.6%(0.2%p 증가)로 소폭이긴 하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고용률은 56.1%(0.1%p 증가), 여성은 59.0%(0.2%p 증가)를 기록했다.

2019년 1~5월 실업자는 1천 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10.1%로 0.1%p 감소하였다. 남성 실업률은 11.3%로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했고, 여성은 9.0%로 0.5%p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증가로 전환된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그림 1] 20~24세(상), 25~29세(하)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구가 증가로 전환된 것은 통학인구 증가에 기인하였는데, 2019년 들어서면서 통학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로 전환(55천 명 감소)되었고, 취업준비(52천 명 증가)와 쉬었음(44천 명 증가)에 의해 1~5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0천 명 증가하였다.

20대 초반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20대 후반에서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대의 노동지표 추이를 5세별로 살펴본 결과, 20대 초반과 후반의 고용사정은 사뭇 다른 모습이였다(그림 1 참조). 20대 초반은 2016년 7월 이후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취업자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20대 후반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인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입한 영향이다. 이 연령층은 인구 증가와 동시에 취업자 증가율도 상승 국면을 유지하면서 2018년에는 평균 5%대의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9년 20대 후반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취업자 증가율이 소폭 감소함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상승이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 보통 20대 초반은 재학생의 비중이 높다. 2019년 1~5월 평균으로도 20~2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재학생인 청년층이 약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으로 청년층 대졸자의 평균 졸업 나이가 전문대는 22.3세, 4년제 대학은 24.4세인 것을 고려하면,<sup>1)</sup> 본격적으로 구직을 시작하고 취업에 이어지는 연령대는 25~29세일 것이다. 더불어 최근 20대 후반에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대 후반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20대 후반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20대 후반 청년층은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의 증가도 이어지고 있었다(표 2 참조). 졸업 여부별로 나누어보면, 대체적으로 졸업생의 취업자 증가폭이 재학생보다 컸고, 2018년 들어서는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하였다(그림 2 참조). 2019년의 20대 후반 취업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졸업생 취업자의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어 5월은 재학생 취업자 증가폭의 2배 차이에 불과했다. 졸업생 취업자 증가폭 둔화나 재학생 취업자 증가는 각각 전년동월의 기저영향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졸업생 위주의

1) 2018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5월)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증가했던 과거와 다르게 2019년의 20대 후반 취업자는 졸업 여부에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1~5월 재학생 취업자는 25~29세 전체 취업자 대비 6.2%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졸업생으로 한정하여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2〉 25~29세 주요 노동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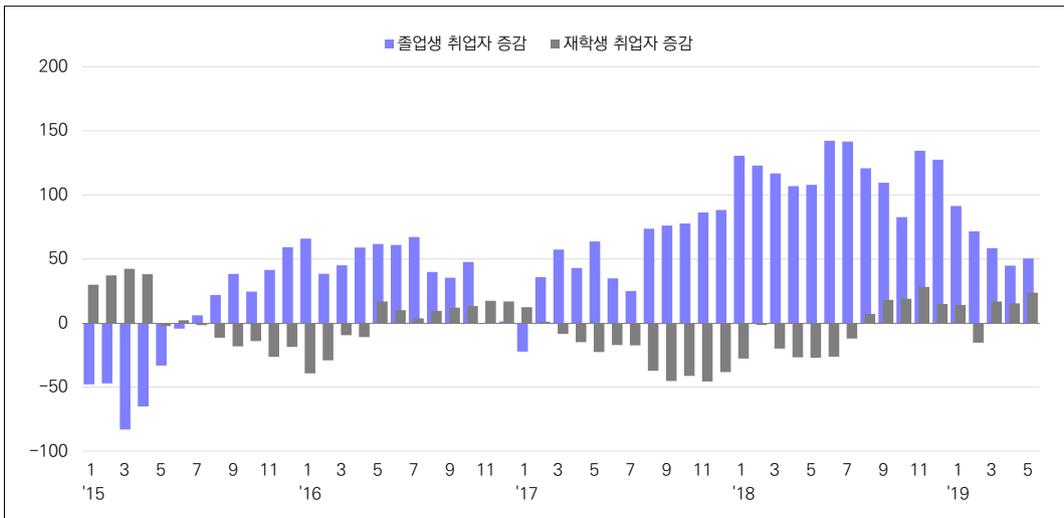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 도				1~5월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9
생산가능인구 (증감)	3,217 (2)	3,252 (35)	3,336 (84)	3,432 (95)	3,239 (25)	3,308 (69)	3,406 (98)	3,494 (88)
취업자 (고용률)	2,217 (68.9)	2,262 (69.5)	2,292 (68.7)	2,408 (70.2)	2,237 (69.1)	2,266 (68.5)	2,363 (69.4)	2,437 (69.8)
실업자 (실업률)	195 (8.1)	229 (9.2)	240 (9.5)	232 (8.8)	251 (10.1)	247 (9.8)	249 (9.5)	242 (9.0)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805 (10)	761 (-43)	805 ( 43)	792 (-13)	750 (-54)	794 (44)	794 (-1)	815 (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25~29세 졸업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1) 재학생은 상급학교의 재학, 휴학이나 수료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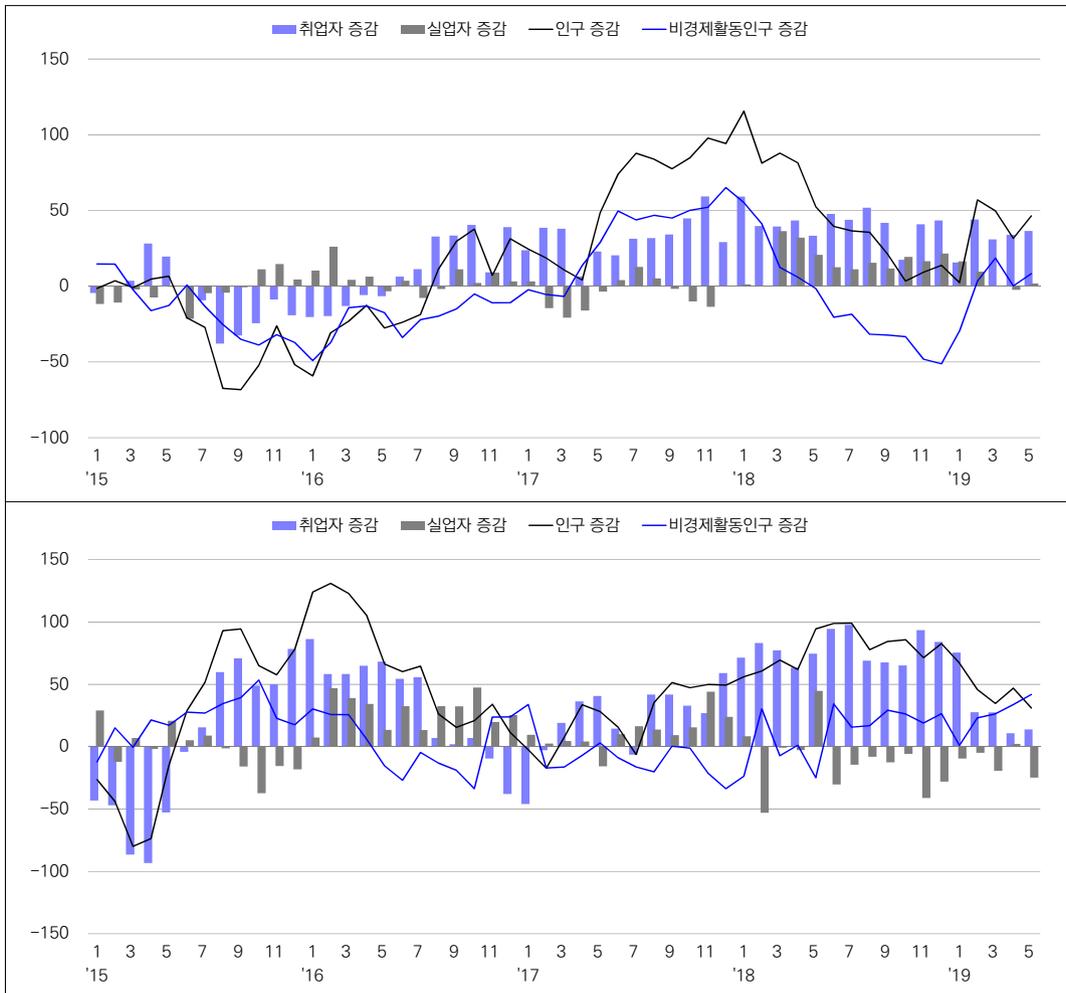
2) 졸업생은 졸업자와 중퇴자(상급학교의 중퇴자는 이전학교 졸업자에 포함)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졸업생의 경우 학력을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학력별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졸업생 취업자의 증가분은 상당부분 고졸 이하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이상은 특히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2019년 4월 14천 명, 5월 1천 명 증가). 이는 2018년의 취업자 증가 기저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반면 2019년 실업자는 모든 학력에서 소폭의 증가를 보이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군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 증가폭을 상회하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 25~29세 졸업생 고졸 이하(상), 전문대졸 이상(하)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종합해보면, 2019년 20대 후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증가분이 고졸 이하에서는 대부분 취업자로 이어졌지만,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결과적으로 고졸 이하의 고용률은 2019년 1~5월 평균 69.6%로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3%p 감소한 9.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문대졸 이상의 고용률은 74.9%(0.1%p 감소)였으며, 실업률은 0.7%p 감소한 8.8%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자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가 학력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여 학력별로 나누어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취업자 변화

2019년 고졸 이하 취업자는 1~5월 평균 32천 명 증가하였다. 고졸 이하 취업자 증가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9년 취업자 증가는 주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표 3〉 20대 후반 졸업생 고졸 이하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연도별			2019		
	2016	2017	2018	3월	4월	5월
전 체	9	32	42	31	34	37
[A, B] 농업 및 광업	-2	2	0	10	9	9
[C] 제조업	11	-7	-17	-1	-4	-8
[D, E] 전기, 가스, 수도업	-1	0	1	-3	-3	-2
[F] 건설업	3	1	16	7	13	2
[G] 도매 및 소매업	-2	12	-7	1	4	9
[H] 운수업	-4	6	13	1	-3	0
[I] 숙박 및 음식점업	20	6	0	-5	16	22
[J] 정보통신업	2	2	8	9	11	5
[K] 금융 및 보험업	-5	2	-1	2	-1	-2
[L] 부동산 및 임대업	-2	2	0	-3	-4	-3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	-9	3	12	8	9
[N] 사업시설서비스업	-1	13	2	-8	-11	-7
[O] 공공행정	-1	-1	9	1	0	-1
[P] 교육서비스업	2	3	2	0	2	2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3	7	0	-2	-3
[R] 예술, 스포츠, 여가	-5	3	4	5	3	0
[S] 협회, 단체, 수리	1	-2	2	2	-1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스업에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숙박 및 음식점업은 4월 16천 명으로 증가 전환되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고졸 이하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꾸준히 증가해오다 다소 둔화되면서 감소하여 2018년 12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증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전체적으로 전 연령대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20대 후반 고졸 이하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하였는데, 모두 일용직에서의 증가였고 최근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2013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고졸 이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2019년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는 1~5월 평균 31천 명 증가하였는데, 2019년 1월까지 76천 명의 큰 증가폭이 유지되었다가 2월 이후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5월 14천 명 증가에 그쳤다. 2019년의 전문대졸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 둔화가 나타난 것은 경기 둔화나 업황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원인과 함께 2018년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기저변동의 영향도 발생한 것으

〈표 4〉 20대 후반 졸업생 전문대졸 이상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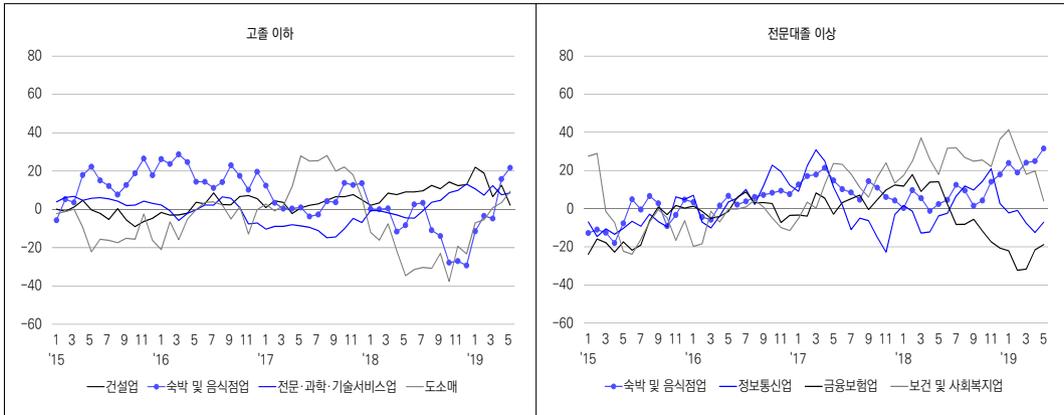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연도별			2019		
	2016	2017	2018	3월	4월	5월
전 체	35	22	79	28	11	14
[A, B] 농업 및 광업	0	0	-1	1	-1	2
[C] 제조업	9	17	10	-30	-34	-44
[D, E] 전기, 가스, 수도업	2	-3	3	2	4	5
[F] 건설업	-13	0	11	1	0	1
[G] 도매 및 소매업	2	-29	22	-3	-9	-10
[H] 운수업	14	0	1	-5	-1	6
[I] 숙박 및 음식점업	4	12	7	24	25	32
[J] 정보통신업	6	3	3	-8	-13	-7
[K] 금융 및 보험업	0	4	0	-32	-22	-19
[L] 부동산 및 임대업	4	2	-4	7	9	7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	1	11	12	-2	-19
[N] 사업시설서비스업	1	1	-11	18	7	17
[O] 공공행정	2	12	14	-1	0	-4
[P] 교육서비스업	2	-13	-13	16	15	18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12	27	18	20	4
[R] 예술, 스포츠, 여가	4	-4	-1	1	2	9
[S] 협회, 단체, 수리	4	6	1	6	10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25~29세 졸업생 고졸 이하(좌), 전문대졸 이상(우)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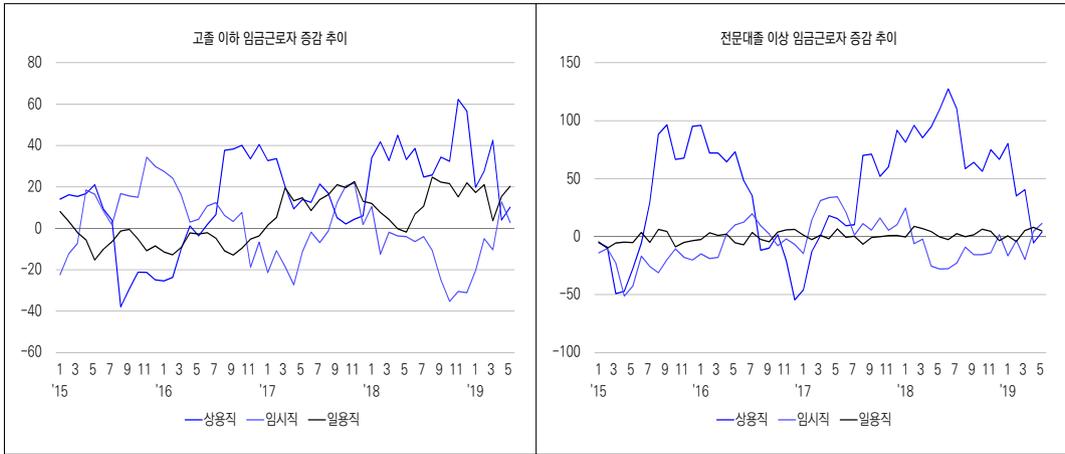
로 보인다. 우선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업종 부진으로 인해 전 연령층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20대 후반에서도 감소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019년 1~5월 28천 명 감소). 제조업에서 전문대졸은 생산직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은 사무직 위주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18년 상반기 크게 증가하였다가 7월부터 상용직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증가 기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병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한 취업자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25~29세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이와 같은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로 20대 후반에서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업종의 2019년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거나 감소 전환으로 들어서면서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개선 흐름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업은 2018년 11월 21천 명 증가한 후 감소 전환되었고, 2018년 크게 증가했던 공공행정도 2019년 1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었다가 3월 1천 명 감소로 전환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서도 취업자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상용직 위주로 증가를 이어오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019년 임시직의 증가가 더해지면서 5월 32천 명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이 포함된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5] 25~29세 졸업생 학력별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후반 중사상지위별 취업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큰 증가를 이어왔는데 2019년 들어서면서 상용직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었다(그림 5 참조). 2019년의 상용직 증가폭 감소 역시 2018년 초반 상용직이 증가세를 보였던 것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를 중심으로 상용직 증가를 보였기에 2019년에도 해당 학력군 위주의 상용직 취업자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소폭의 증감을 보이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고졸 이하의 상용직과 임시직의 증감 추이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016년 이후 상용직 중심의 증가를 보이면서 임시직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2019년의 20대 후반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며, 상용직 중심의 증가 또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경기 둔화와 업황 부진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한 것과 더불어 2018년에 증가폭이 워낙 컸던 만큼 기저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20대 후반 취업자 증가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등의 산업에서 고용 개선이 이루어진 영향도 있었지만 2019년 들어서는 이들 업종의 고용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20대 후반의 고용개선 흐름도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미취업자 변화

2019년 20대 후반의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위

주로 증가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사유별 비중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고졸 이하는 육아·가사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9년 쉬었음이 22.7%로 크게 증가하여(4.8%p 증가) 고졸 이하 미취업자 대비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는 2016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쉬었음의 비중이 평균 12%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14.0%). 그러나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의 비중이 67%로 미취업자의 2/3를 차지하여 구직활동 유무를 떠나 취업으로 연결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미취업자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가사는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14.9%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5월)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 1주 취업 관련 시험준비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살펴보았다. 미취업자 중 시험준비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48.3%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이 준비한 시험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시준비생을 공사, 임용고시, 사법고시 등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라고 정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공시생 비중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소방, 군무원이 포함된 일반직 공무원이 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2018년 고졸 이하 공시준비생이 37.6%, 전문대졸 이상에서 55.2%로 상대적으로 대졸자 이상에서 공시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를 준비하기 위한 취업준비생은 2018년 29.2%로 나타났다. <표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몇 년간 취업준비생의 시험준비 분야 추이가 비슷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9년의 취업준비생들도 공시준비와 일반기업체를 준비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5> 25~29세 졸업생 미취업자 비중 현황(1~5월)

(단위 : %)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실업자	취업준비	쉬었음	육아·가사	실업자	취업준비	쉬었음	육아·가사
2015	16.9	13.6	16.8	43.5	28.2	27.9	12.8	26.7
2016	22.3	12.1	16.2	38.4	31.1	31.4	12.2	22.0
2017	17.9	13.9	16.6	40.3	31.3	35.3	12.3	17.4
2018	22.2	18.4	17.9	31.4	31.5	36.6	12.5	16.2
2019	23.7	18.5	22.7	25.6	28.7	38.3	14.0	14.9

주 : 각 연도의 학력별 미취업자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25~29세 졸업생 미취업자의 시험준비 분야 추이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취업자 대비 시험준비 비중	36.7	42.6	39.9	45.8	50.0	48.3
공시준비	47.6	45.3	54.8	58.2	50.9	52.0
대·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	26.1	30.7	26.0	28.3	29.9	29.2
기타	26.3	24.0	19.2	13.5	19.2	18.8

- 주 : 1) 공시준비는 '공사,공단 등 국공영기업체', '교원임용고시(사립교사 포함)', '사법고시, 5급 공채',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이 포함됨.  
 2) 시험준비는 '방송, 신문 등 언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미용사, 조리사 등 기타 자격증' 준비가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5월.

종합해보면,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군에서 실업+취업준비의 비중이 높았지만 모든 학력에서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활동(구직활동+취업준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들은 주로 공시준비나 대·중소기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쉬었음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쉬었음 인구 중 대다수가 전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잠시 구직을 위한 대기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IV. 맺음말

2018년 우리나라 청년층은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었으나 2019년 1~5월은 20대 후반 대졸자 위주로 취업자 증가가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인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의 20대 후반 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영향과 정보통신업, 공공행정과 같이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에서 고용이 개선된 영향이 함께 나타났다. 2019년 20대 후반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지속되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가 둔화되는 것은 작년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만큼 기저효과와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18년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의 고용이 개선되면서 20대 후반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졌지만 2019년 1~5월 이들 업종에서 고용증가폭이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있어 청년층 고용개선 흐름도 다소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월 20대 후반 미취업자들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와 취업준비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구직활동의 유무를 떠나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은 주로 대졸자 이상 학력자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구직자의 학력이 상향평준화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시준비나 취업준비생으로 머무르는 청년들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에코붐세대가 25-29세에 진입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남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보아도 2021년까지 25-29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차후 경제 주축이 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유희인력으로 흡수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LI**